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5년 3월 8일(주일) 제1039호

더 경건하게, 더 절제하는



4월 4일까지 사순절 ... 묵상, 금식과 절제, 구제 다양한 모양으로 삶속에서 신앙을 실천하기

이 기간 동안 다양한 모양으로 삶속에서 신앙을 실천할 수 있다. TV시청 제한이나 SNS 사용 자제 같은 미디어 금식, 성경을 읽고 깊이 묵상하는 경건훈련, 새벽기도나 금식기도, 심야기도회에 참석해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 자원봉사, 헌혈, 독거노인 찾아가기 등 이웃사랑 실천도 좋은 방법이다. 무뎠던 신앙을 재무장하는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조금 더 경건하고, 조금 더 절제하는 사순절을 보내면 좋겠다.

2월 18일부터 4월 4일까지 사순절(四旬節, Lent) 기간이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고 구원자의 길을 가신 기간이다. 대체로 부활절 이전 주를 제외한 40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경건하게 보내는 절기다.

사역_ IT선교

» 2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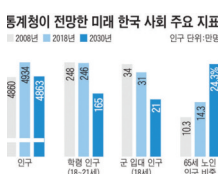
“잠자는 스마트폰이
한 영혼을 살립니다”
3월 8일과 15일 중교
스마트폰 수거



기획_ 인구문제와 교회

» 4-5면

교회가 극단적으로 다
른 두세대 끌어안아야
기성세대와 젊은세대,
사회환경과 인식 달라



탐방_ 강화지역 기독교 역사

» 9면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강화도 선교 120년,
인구 25%가 기독교인



대청 청년희망공간 '이룸(E-Room)' 오픈

예배일시: 3월 8일 오후 2시
장소: 동송아트센터 2층

온누리신문 취재기자 모집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기명기사, 최종학력증명서
문의 : one@onnuri.org, 02-3215-3193

“잠자는 스마트폰이 한 영혼을 살립니다”

FMnC, ‘스마트바이블 사역’ 시작! ... 8일과 15일 중고 스마트폰 수거



스마트바이블로 영상성경을 시청하는 캄보디아 오지마을 주민.



대학살로 인해 현재 캄보디아 국민의 40~50대 대부분이 글을 모른다고 한다. 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쥐였자 한낱 종이 찌가리에 불과할 뿐이다. 또한 도로, 통신시설이 미흡해 라디오나 TV시청이 어려운 지역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복음을 듣는 것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기존의 선교방법은 통하지 않는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스마트바이블 사역’이 제격이다. 휴대가 간편해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볼 수 있고, 글을 몰라도 영상이나 오디오로 복음을 보고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망도 밝다. 우리나라는 뛰어난 IT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교체하는 주기도 빠르다. 서랍이나 장롱 속에서 잠자고 있는 사용하지 않는 스마트폰이 한 영혼을 살리는 유용한 선교도구가 될 수 있다.

/ 정지은·정현주 기자

FMnC(기술과학전문인선교회) 스마트바이블팀에서 오늘(8일)과 다음 주일(15일) 안 쓰는 중고 스마트폰을 기증받는다. 수거된 중고 스마트폰에 1,000여개 언어로 번역된 현지어 성경과 오디오 성경, 설교 영상 등을 담아 선교지로 보내기 위해서다. 기증받은 스마트폰은 혹시라도 남아있을지도 모를 개인정보를 완벽하게 삭제하고 나서 오디오와 영상으로 된 성경 자료를 담아 선교지로 보낸다. 통화가기가 아니라 선교지의 디지털 성경과 복음 콘텐츠(영

화, 영상, 오디오)로 활용된다.

이 같은 IT선교는 그동안 해오던 선교방법(선교사 파송, 성경책 보내기, 인터넷과 위성방송에 의한 선교활동 등)에 제약이 많은 지역에서 활용하기 위한 대안이다. 이른바 ‘스마트바이블’ 사역이다.

IT 사역이 왜 필요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아직도 세계 곳곳에 선교하

기 어려운 지역들이 많기 때문이다. 여러 무슬림 국가와 공산 국가에서는 선교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성경을 소지하는 것도 금하고 있다. 지난 2009년 아프리카의 한 지역에서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살해당한 일도 있었다. 또한 문맹이 많아 성경책이 있어도 소용없는 곳이 많다. UN통계에 따르면 세계 70억 인구 중 7분의 1에 해당하는 10억 명 정도가 글을 읽지 못한다고 한다. 캄보디아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1975년에서 1979년 사이 폴포트 정권이 일으킨

*선교단체 FMnC는

복음전파가 제한된 지역을 위해 IT와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창의적인 선교전략을 펴고 있는 초교파 선교단체다. 2014년 1월 스마트바이블 사역과 팀을 구성해 현재까지 네 번에 걸쳐 스마트바이블을 보내고 있다. 1,000여 언어로 된 말씀 자료 확보와 미디어를 스마트폰에 효율적으로 담기 위한 기술적 도움과 재정지원이 절실하다.

문의: FMnC 스마트바이블팀 070-7500-6244
후원계좌: 국민은행 040001-04-134698
우편기증: 137-824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32
오션빌딩3층 스마트바이블 담당자 앞



칼럼 이승훈 집사(온누리 IT전략위원회)

IT선교 중심에 ‘온누리 IT전략위원회’가 있다

예수님께서 도착하시기 전부터 언덕배기 야외 강연장에는 인파로 가득 차 있었다. 남자만 5천명이 넘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주하게 마이크를 세팅하고, 노트북을 켜놓고 대기하고 있었다. 예수님이 도착하시고 무선 마이크를 장착하시자마자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라고 말씀을 시작하셨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놓칠새라 열심히 적었다.

제자들도 덩달아 바빴다. 태블릿PC에 적는 제자, 영상을 담는 제자, 인터넷과 모바일로 생중계하는 제자, 음량과 조명을 담당하고 있는 제자, 와이파이를 장착된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제자 등 모두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5천명이 넘는 청중들도 일제히 자신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이용해 예수님의 말씀을 적고, 녹음하고, 녹화하고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예수님의 말씀이 실시간으로 해시태그와 메타태그로 데이터베이스화되었고, 텍스트와 동영상과 같은 수많은 2차 콘텐츠로 가공되어 세상 끝까지 번져가고 있었다.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순식간에 번져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려들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물려오자 예수님께서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하러 가셨다.

산상수훈이 지금 있었다면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복음

이 전파되는 방법은 이제 더 이상 제한이 없다. 우리는 IT라고 하는 정보통신의 시대에 살고 있다. IT시대는 실시간시대이기도 하다. 모든 정보가 동일한 시간에 원하는 사람들에게 도달하기 때문이다. 복음이 IT라는 도구를 등에 업고 전파된다면 훨씬 빠른 시간에 땅 끝까지 도달할 수 있다. 위성접시 하나면 오지와 산간에도 인터넷이 연결되고, 와이파이를 통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각국의 언어로 복음을 들을 수 있다.

우리는 이미 스마트폰으로 불리는 휴대용 컴퓨터를 한 대씩 들고 다닌다. 스마트폰을 통해 내 신앙을 풍성하게 할 수도 있고, 긴급하게 중보기도할 수도 있다.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효과적으로 알릴 수도 있다. 모바일과 IT 기술은 이 시대의 위대한 선교의 도구다.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세상과 복음이 소통하게 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도구이다.

온누리교회와 한국교회가 미래사역을 위한 닳을 올렸다. 2015년 1월 온누리 IT전략위원회가 출범한 것이다. 온누리 IT전략위원회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IT를 도구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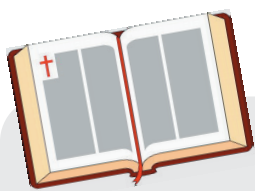
온누리교회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위해 다듬고 생산하고, 활용하게 된다. IT사역은 성인뿐만 아니라 차세대를 위한 사역이기도 하다. 복음을 가감이나 왜곡 없이 전달하는 효과적인 전략이

다. 미래세대들이 가장 익숙한 형태로 복음을 접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그들이 항상 가까이 둘 수 있는 도구가기도 하다. 온누리 IT전략위원회에서는 미래를 위한 아이디어로 기획을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정보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 기반을 구축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 일을 위해 온누리 IT전략위원회에서는 많은 동역자가 함께 하기를 기도하고 있다.

주께서 주신 달란트가 IT사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 사역에 힘을 보태주면 좋겠다. 달란트가 IT와 상관없어도 기도와 좋은 아이디어를 쥐도 좋다. IT사역을 통해 지금이 풍성해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힘이 더 세질 것이다. 우리의 미래세대가 복음 안에 든든히 세워질 것이다.

*온누리 IT전략위원회는 지난 1월 출범했다.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와 캠퍼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IT를 활용한 선교를 위해 지혜를 모으는 공동체다. 온누리 IT전략위원회에서는 함께 동역할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다. IT선교에 관심이 있거나 달란트가 있는 성도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 김준도 총무 (010-8846-1031)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기도의 손을 들라

출 17:8~16

육신의 전쟁이든, 죄의 전쟁이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모세의 기도의 손을 보신 것처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상징성이 강한 책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만드신 시나리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애굽에서 고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 빠지고 열매여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애굽은 사탄과 흑암, 죄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애굽 권력의 절정에 바로가 있었습니다. 바로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하게 내버려두는 것을 거부하고 그들이 계속 종의 상태로 머물게 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백성들을 인도한 인물입니다. 그는 사탄과 싸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 구원받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한 후에 곧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광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받은 이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고, 연단되는 기간을 상징합니다. 광야는 우리를 시험하는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생활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

출애굽 한 백성들이 주로 겪었던 광야의 시험은 내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에 앞서 행하시고, 필요를 공급하시고,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이 부족해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 광야에서 만난 첫 번째 외적인 시험입니다. 아말렉 족속의 공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난 첫 번째 외적인 시험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공격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는 출애굽을 방해하는 세력입니다. 구원을 방해하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 만난 아말렉 족속의 공격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출애굽이 구원이요, 바로가 사탄이라면 구원받은 이후 광야를 지날 때 만난 성도의 시험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방해하는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외적인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성향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고 누리면 됐습니다. 구원은 사탄과 대항하고 싸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만난 아말렉과의 싸움은 하나님이 싸워주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싸움에 참여해서 이겨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어떻게 싸웠으며, 어떻게 이겼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승리를 어떻게 평가하셨는지를 보면 이 사건의 상징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언덕 꼭대기에 올라간 모세

아말렉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선발해 나가 싸우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언덕꼭대기로 올라가 있겠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대로 사람들을 뽑아 나가 싸웠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모세가 계속 손을 들고 있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론과 훌이 승리할 때까지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매우 이상한 전쟁입니다. 전쟁의 승패가 나가 싸우는 여호수아의 능력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언덕꼭대기에 있는 모세의 손이 들려져 있는가에 따라 좌우되는 전쟁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하고, 자신은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겠다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오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산꼭대기에 있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전략은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을 했고, 어떻게 해야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 전쟁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말렉이 쳐들어 왔을 때 모세는 이미 광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른 차원의 일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원치 않았던 부르심을 따라 바로를 상대했고, 자신에게 주어진 부르심을 따라 순종했을 때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나갔을 때 일

어났던 모든 사건들을 체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믿음의 세계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기도의 손을 든 모세

모세는 이 싸움도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싸울 것인가 보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은 실제 싸우는 것과 기도하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 우리 민족을 공격해 오면 나가 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니까 아니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정답은 둘 다 해야 합니다. 모세는 둘 다 했습니다. 그는 기도만 하지 않았고, 나가 싸우기만 하지도 않았습다.

나가 싸우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는 영적인 우선순위를 가지고,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전략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를 통해 전쟁에 이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던 것은 기도의 손을 든 것입니다. 자신의 손만 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준 지팡이도 하늘 높이 들었습니다. 흥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과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위로 들었습니다. 앞으로 내밀던지 위로 들던지 그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행위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지팡이를 내민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밀어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가 지팡이를 위로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 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세의 믿음은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와 손을 들고 있으면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힘을 얻어 아말렉을 이겼습니다. 그러나 지쳐서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 보이는 전쟁을 좌우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에는 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문제와 갈등이 있습니다. 보이는 문제와 보이는 않은 문제의 승패가 어디에서 갈리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상징적 사건을 보여주고 계

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어느 민족이 싸우는데 성경처럼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지팡이 들고 있으면 이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상황에서 주신 형태와 사건입니다. 그 상징이 주는 원리를 깨닫고 우리 삶속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도 모세와 동일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형태와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원리와 의미를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동일한 승리가 주어진다 는 것입니다.

육신과의 싸움을 의미

바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은 그들의 행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힌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참여나 공로, 노력과 행함이 더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만난 아말렉과의 싸움은 참여가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의 원리를 알고 싸워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기도의 손을 들고, 여호수아는 실제 나가서 싸워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십니다. 그 싸움을 성령님이 대신 해주 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함께 그 싸움에 참여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다 물리쳐주십시오”라고만 기도하면 안 됩니다. 내가 물리칠 수 있도록 순종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우리 안에 있는 육신과의 싸움을 의미합니다. 세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시점입니다. 출애굽기 17장 전반부를 보면 르비딤에서 물이 부족할 때 하나님이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했습니다. 출애굽기의 사건들은 매우 상징성이 강합니다. 광야의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광야에 사는 인생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습니까? 물 때문입니다. 물이 터져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물이 탐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것입니다.

《13면에 계속》

인구문제와 교회

교회가 극단적으로

기성세대와 젊은세대, 사회환경과 인식이 달라
인구문제는 교회의 미래와 직결, 지금부터 대비해야고 건 장로
(전 전주대학교총장)

역사학자들은 인구 문제가 20세기 후반에 세계 사회와 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한다. 1945년 2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 땅은 많이 파괴되었다. 수많은 집, 도로, 공장, 가구들이 사라졌다. 이러한 상황은 곧 일감이 많아졌음을 뜻하였다. 그러면 전후 복구는 누가 하는가? 일차적으로 20~60세 사이 남자들이다. 그런데 이 인력들이 전쟁 중에 가장 많이 희생되었다. 따라서 2차 세계대전 직후 근로자의 몸값은 금값으로 뛰었다. 유럽대륙에서는 근로자의 의견이 최대 존중될 수밖에 없는 사회주의가 자리 잡게 되었다. 두둑한 휴가, 든든한 연금 등이 보장되지 않으면 일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나고 국토가 복구됐다. TV, 자동차, 가구 등도 갖춰졌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일감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20세기 후반 일감은 줄기차게 줄었고, 반대로 인구는 줄기차게 늘었다. 이 세대를 베이비붐(Baby boom)세대라고 한다. 2000년 가까이 되면서 일감은 바닥을 치는데 인구는 천정까지 늘어났다. 21세기 들어서면서 청년 일자리 부족현상이 전 세계적인 사회문제가 됐다. 중동의 자스민 혁명, 최근 IS문제도 청년 일자리 부재와 무관하지 않다.

미국과 프랑스의 인구문제

인구문제는 미국과 프랑스 사례를 들 수 있다. 프랑스는 1960년대가 되자 베이비붐 세대가 20대에 진입했다. 이때 갑자기 불어난 수많은 학생들이 대학 문을 두드렸다. 대학 수가 턱없이 부족해졌다. 프랑스는 서둘러 파리 제7대학, 8대학, 10대학 등을 만들었다. 그러나 하드웨어만 늘었지 교수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 법이다. 그러다 보니 교수 일인당 가르치는 학생 수가 지나치게 많아졌다. 한명의 교수가 100명의 석사학생을 지도하는 최악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대학은 학생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했다. 불만이 극에 달한 학생들은 캠퍼스를 불태우고 거리로 뛰쳐나와 교육에 더 많이 투자할 것을 요구했다.

대학 건물은 불타고, 기능은 마비됐다. 유급사태가 벌어졌다. 또한 프랑스가 2차 세계대전에 몰두하는 동안 식민지 반란세력이 커졌다. 전후 프랑스는 이들을 진압하느라고 북아프리카, 동남아 등지에서 엄청난 군비를 쓰고 있었다. 결국

대포나 교육이나의 기로에서 드골 대통령은 젊은 세대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식민지를 포기했다. 학생들은 대학 경영에까지 참여하는 권리를 얻어냈다. 그 결과 유럽 대학들은 미국 대학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미국 역사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다.

미국도 1960년대가 되면 베이비붐 세대가 20대가 됐다. 미국 언론은 “그 당시 미국문화를 이들이 좌지우지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기성세대는 다분히 퓨리탄 성향이었는데도 장발, 히피, 미니스커트, 록앤롤 등이 사회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됐다. 20대들이 늘어나면서 대학, 일자리가 심각하게 부족해졌다. 이 시기에 ‘40대 기수론’을 주장하는 케네디가 정말로 40대에 대통령에 당선되는 이변이 일어났다. 케네디 정부는 일자리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화봉사단(Peace Corps)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때 평화봉사단에 참여한 세대가 후일 국제무대에서 수많은 외교관, 사업가들을 배출했다. 미국 국익에 기여하게 됐다.

우리나라의 인구 증가

우리나라도 1960년대가 되면서 출산율이 6.25 전쟁 직후보다 두 배로 뛰었다. 2001년 통계에 의하면 1960~1965년 사이 출생자는 400만 명, 1945~1950년 사이 출생자는 200만 명이다. 6.25 전쟁이 끝나고 사회가 안정되자 인구가 급속히 늘기 시작한 것이다. 왜 이렇게 인구가 늘었는가? 서양문명이 들어오면서 상수도도와 같은 보건, DDT나 페니실린 같은 의약, 의무교육 실시에 따른 민도의 선진화 등이 인구증가에 기여했을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문명의 혜택이 서양에서는 수백 년에 걸쳐 서서히 도입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모든 문물이 갑자기 들어오면서 인구도 급속하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미군이 진주한 한국과 일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미군 진주가 없었던 히말라야 산속의 N국, 태평양 한가운데의 M국 등에서는 이와 같은 급속한 인구증가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의 급속한 인구 증가는 인류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보기가 드물다.

한국의 인구증가는 쓰나미 파도가 몰려오는 것처럼 사회 전반에 엄청난 문제를 야기한다. 이 베이비붐 쓰나미 세대가 10세, 20세, 30세로 성장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차례로 일어났다. 처음에는 산부인과 수요가 급증했다. 이 시기 산부인과는 대박이 났다. 수많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준재벌(?)이 되었다. 베이비붐 세대가 10세에 도달하면서 학교가 모자라게 됐

다. 학생이 갑자기 늘어나다보니 콩나물 교실이 되었다. 2부제, 3부제 수업을 하게 됐다. 교사 일인당 담당하는 학생 수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 교육의 질이 떨어지게 됐다. 베이비붐 세대가 20세에 도달하면서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 하는 인구가 많아지게 된다. 임시직육이 시작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유교의 엄격한 신분제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양반이 아닌 사람이 학사모를 쓰지 않으면 사람대접 못 받는 세상 속에 살아왔다.

이러한 차별을 뼈저리게 경험한 부모들이 한을 품었다. 학부모들은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자녀를 대학에 진학시키려고 했다. 그러니 입시는 무한 경쟁체제가 되었고, 사교육이 크게 성장했다. 좋은 학원이 밀집된 지역은 부동산 값이 크게 뛰었다. 이때 우리나라는 대학을 70개에서 250개로 크게 늘렸다. 국내 교육에 실망한 부모들은 외국 중고등학교, 대학교로 유학을 보냈다.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이 부지기수로 나왔다. 서울 학생이 지방으로 ‘유학’을 가는 일이 다반사였다. 변별력이 높아져야 학교 간, 학과 간 배정이 가능해지다보니 입시는 갈수록 어려워졌다. 그런데도 아무도 입시문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베이비붐 세대가 30세에 다다르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군복무 마치고 직장 문을 두드리는 나이가 됐다. 많은 대학 졸업생들이 직장 문을 두드리다보니 문이 좁을 수밖에 없었다.

이 시기 법대 졸업생을 위해 사법고시 정원을 5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렸다. 사법대 졸업생들을 위해 기존 교사들의 정원을 조정했다. 현역병이 넘쳐나다 보니 그들 모두를 전선에 배치할 수 없어 동회 등에 배치하는 의경 제도가 등장했다. 베이비붐 세대가 40세에 도달했는데도 그 나이까지 직장을 구하지 못한 청년들이 누적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일자리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21세기에 들어서며 베이비붐 세대들은 은퇴를 하고 있다. 그러자 요즘 언론들은 은퇴자의 복지, 은퇴자의 연금을 화두로 장식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문제는 지난 30년 동안 사회의 핵심문제가 됐다. 우리나라는 1953년 625 전쟁이 끝나면서 베이비붐이 시작되었지만 일본은 1945년부터 베이비붐이 시작됐다. 일본의 인구문제는 한국보다 10년 정도 앞서 시작됐다.

저출산, 인구증가의 후폭풍

인구가 급격하게 늘면서 한정된 자원과 일 자리를 두고 경쟁이 격화될 수밖에 없다. 경쟁이 격화되면 물가가 올라가고 취업률이 좁아지고, 더 높은 스펙을 쌓기 위해 교육비가 올라가게 된다.

자녀나 부모 모두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 “내가 이렇게 야박하고 격렬한 세상에 애를 굳이 낳아야 하나?”고 회의하는 젊은이들이 늘기 시작한다. 인구가 과도하게 증가하면 그 사회적 피로감 때문에 저출산이 뒤따르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역사 속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예일대학 Keith Wrightson 교수의 〈English Society 1580~1680〉이라는 책에서 500년 전 영국에서 인구가 크게 증가했고, 이 베이비붐은 곧이어 저출산을 동반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16세기 영국은 대표적인 개신교 종주국이 되었다.

프로테스탄트들은 성경을 번역하고 인쇄해서 전 국민들에게 열심히 배포했다. 국민들이 성경을 읽게 하려고 교회가 대대적으로 국민교육을 시작했다. 아마도 이러한 국민 교육의 결과로 영국 인구가 늘기 시작한 것 아닌가라고 필자는 추측한다. 영국 인구는 1520년 250만 명이던 것이 1680년 500만 명으로 두 배 늘었다. 이 기간 동안 영국에서 농산물 값이 6배로 뛰었다. 소출은 유한한데 인구가 두 배로 늘어나니 농산물 값이 6배나 뛰었다.

반면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같은 기간 절반으로 줄었다. 인구가 두 배 늘었기 때문이다. 지주들은 아무런 노력 없이도 수입이 6배나 뛰었고, 근로자 수입은 반으로 줄었다. 그 결과 양극화가 진행됐다. 젊은이들의 결혼 연령도 급속히 올라갔고, 저출산으로 이어졌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렸을까? 영국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자 식량 수요가 급증했고, 이는 다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로 이어졌다. 사람들은 열심히 종자를 개량하는 기술, 토양 개량 기술, 2모작 기술 등을 개발했다. 농업혁명이 이때 영국에서 일어난다. 소출이 늘어나자 임금이 올라갔다. 임금이 올라가자 구매가 늘었고, 이는 산업혁명으로 이어졌다. 현대 용어로 ‘창조경제’가 이 시기에 진행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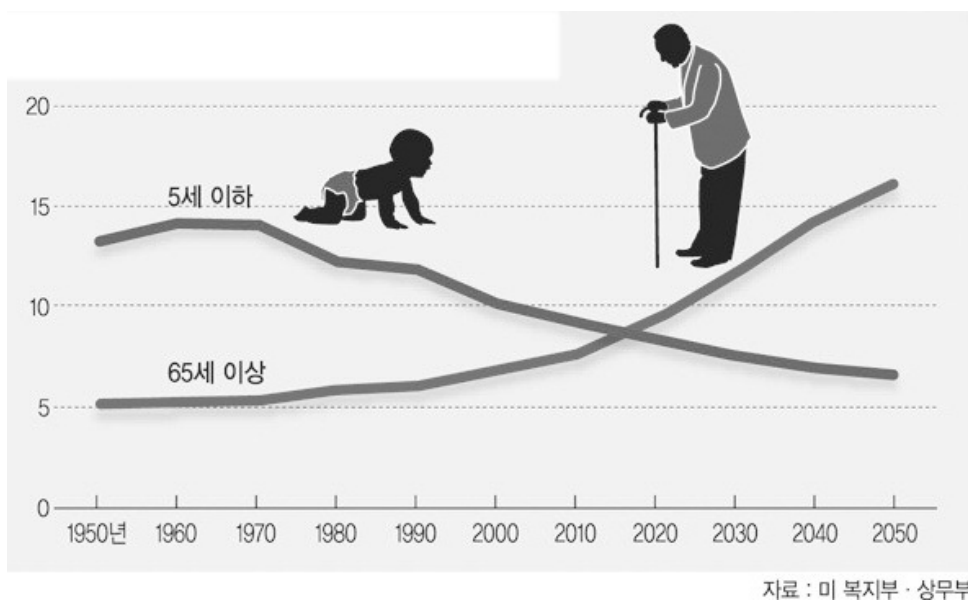
2030년에 닥칠 문제 ‘고급인력 부족’

우리나라 베이비붐도 저출산 문제로 이어졌다. 70년대 매해 100만 명 이상 출생하던 신생아가 최근에는 매해 40만 명 이하로 줄어들었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두드러졌다. IMF 사태가 일어나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젊은이들이 결혼을 늦추고, 자녀도 적게 낳기 시작했다. 1997년 이후 산부인과가 부지기수로 문을 닫았다. 그로부터 10년 후 2007년 학급당 학생 수가 반으로 줄었다. 전국 각처에서 문을 닫는 학교가 부지기수로 나오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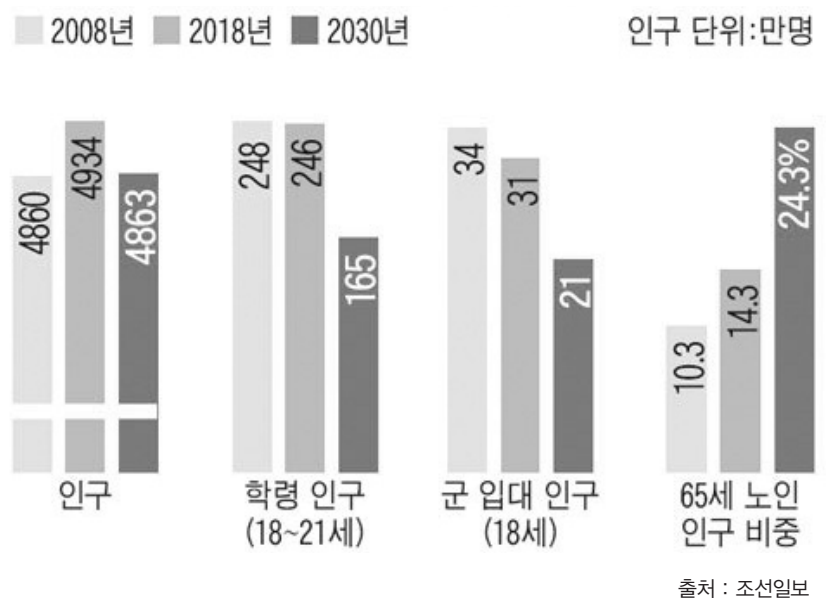
수능을 못 봐도 얼마든지 대학에 들어갈 수 있

다른 두 세대 끌어안아야

총인구 대비 연령대별 비중추이 (단위 : %)



통계청이 전망한 미래 한국 사회주요 지표



는 길이 열리게 된다. 입학사정관제가 그 예다. 해외유학도 줄어들다.

IMF 사태 후 20년이 되는 2017년경에는 대학 신입생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대학 등록금 수입이 절반으로 줄고, 반값 등록금 압력까지 가해져 많은 대학들이 폐교하게 될 것이다. 수많은 교수와 직원들이 직장을 잃을 것이다. 또 군대 입영 대상자들이 줄어드니 군복무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게 된다. 그래도 못 채우는 군인은 직업 군인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게 된다. 그런데도 저출산 세대보다 앞서 태어났던 베이비부머 세대는 아직도 많은 수가 직장에서 현역으로 일하고 있다.

20~30대들은 비정규직 취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이 사회문제가 되고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호응을 받는 이유다. 혁신과 창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게 된다. 앞으로 15년 후 2030년이 되면 IMF 출생세대가 30세를 넘게 된다. 2030년이 되면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강연이 최근 TED에 올라왔다. 독일태생 R. Strack씨가 발표한 ‘The Workforce Crisis of 2030’ 이 바로 그것이다. 그에 의하면 2030년이 되면 15개 경제 대국 대부분이 저출산으로 인력부족 문제를 겪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한국은 15개국 중 가장 인구부족 문제가 심각한 나라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이것이 흔한 ‘미래예측’이 아니라 엄정한 데이터에 입각한 과학적 분석이라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2030년에 직장에서 일하게 될 사람들은 그때 20~60세인데 그들은 이미 오늘 5~45세로 그 연령별 인구가 확정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는 인구 부족문제는 항상 고급인력이지 단순 노동 인력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단순노동 인력은 후진국에서 언제든 받아들이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15년 후 2030년에 닥쳐올

고급인력 부족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그는 네 가지 해법을 설명했다.

미래의 위기, 네 가지 해법

첫째, 로봇을 많이 투입하고, 사무행정 효율을 높이며, 농업, 수송 등 모든 부문에서 IT와 융합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여성 고급인력들이 육아문제 때문에 career를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스마트 워크 환경, 모바일 워크 환경을 구축하고, 모든 여성들이 탄력적으로 근무하고 태권근무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셋째, 은퇴연령을 높이는 것이다. 젊은 세대가 60대가 되면 일찍 은퇴하지 못하게 된다. 병원, 도로, 항만, 발전소, 회사 등 모든 인프라와 조직을 지금은 10명이 운영하던 것을 그때에는 5명이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넷째, 국가 간 고급인력 유치경쟁이다. 2030년이 되면 국가 간 고급인력 유치경쟁이 본격화 된다고 예측한다. 그는 전 세계 189개국 200,000명의 고급인력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다. 취업 이민을 갈 경우 어떤 나라로 갈 것이며, 왜 그 나라로 가려고 하는지를 물었다. 놀랍게도 연봉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8위). 오히려 직원에 대한 평가가 공정한지, 감사표시를 제대로 하는 직장인지(1위), 동료와 대인관계가 좋은지(2위), 일/생활 간 균형이 적절한지(3위), 상사와 대인관계가 좋은지(4위) 등이 더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미래 한국교회의 과제

우리나라도 2030년을 대비해 직장 문화를 많이 바꿔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15년 후 많은 고

급 인력들이 선진국으로 스카우트 될 것이다. 15년밖에 안 남았다. 미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급인력 유치를 위해 매력적인 조건을 하나 더 추가하고 있다. 바로 MOOCs(Massive Open Online Courses)이다. 미국의 edX, Coursera, Khan Academy 등 온라인 교육 콘텐츠로 전 세계 많은 차세대들을 영어로 미리 훈련시키고 있다. 영어로 교육받은 고급 인력이 갈 나라는 자명하다.

확실히 우리나라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는 매우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 기성세대는 물질이 부족하고 사람도 적은 세상에 태어났다. 굶주림과 가난을 면해보는 것이 평생 꿈이었다.

인본주의, 물질주의, 과학만능주의 등은 그들에게 사치였다. 그 대신 일감은 사방에 있었고, 사람대접은 평생 받고 살았다. 부국강병을 일궈낸 세대, 국제시장의 주인공이라는 칭송이 그들을 평생 따라 다녔다. 반면 2030 세대는 물질도 풍요롭고, 사람도 너무 많은 세상에서 인생을 시작했다. 물질은 풍요로우나 사람대접은 최악이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시대에 태어났다. 기성세대 선생이나 목사는 학생과 신도가 너무 많은 것이 평생 고민이었다.

건물 늘리고, 조직 확산하는 것이 평생의 과제였다. 반대로 2030 세대 목사와 선생은 신도와 학생 수가 줄어드는 문제를 직면해야 한다. 기성세대는 일찍부터 돈벌이를 시작했지만, 노년에는 늘어나는 인구에 치여 일찍 은퇴해야 하고, 은퇴 후에는 100세까지 노후대책 없이 어려운 삶을 살아야 하는 세대다. 절대빈곤으로부터 탈출하는 것만 해도 평생 힘겨웠기에 미처 노후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찍 취업했지만 은퇴도 일찍하는 ‘quick start, quick finish’ 세대이다.

중세 유럽에서도 비슷한 노인문제가 일어났었다. 과거 유럽 중세 시대에는 노인 복지문제를 교회가 담당했었다. 그러다가 교회의 토지와 재산

이 점차 국가로 귀속되면서 교회는 더 이상 노인들을 돌볼 수 없게 되었다.

교회가 노인들을 보살피지 못하고, 세속정부의 복지도 없는 상태가 되자 노인들은 외곽으로, 산속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그들이 못 먹고, 못 입게 되자 여위고, 더럽고, 할아버지 행색이 되면서 사회에서 혐오 대상 ‘witchcraft’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반면 2030 세대는 취업이 안 돼 고생하지만 은퇴연령도 늦어지는 ‘slow start, slow finish’ 세대가 될 것이다.

기성세대는 모세 세대처럼 빵과 물과 가난과 불확실성 때문에 새벽기도 제단을 찾았던 세대들이다. 대신 2030 세대는 젓과 꿀과 땅은 주어졌지만 사방에서 에워싸고 있는 음란과 물질주의와 과학만능주의, 인본주의 등과 싸워야 하는 세대이다. 그러나 2030세대는 삶의 경쟁이 너무 치열해 진화론, 과학만능주의, 젊은세대는 물질만능주의, 인본주의, 무신론 등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는 세대이다.

교회가 2030세대의 이러한 영적, 정신적 위험 상황을 직시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에 성의를 가지고 확실한 답을 준비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다면 젊은이들은 방황하며 교회를 떠나 어두움의 세력으로 합류하게 된다. 광야의 험난한 여정을 마치고 대책 없이 황혼에 다다른 기성세대의 노후 문제든, 젓과 꿀과 땅은 주어졌지만 알몸으로 이방문화의 공격 속에 홀로 내던져진 2030세대 문제든 해결방법은 한 가지 뿐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뿐이다.

미래의 한국교회는 외적 성장은 멈춘 상태에서 극단적으로 다른 두 세대의 문제를 끌어안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 글은 지난 3월 3일 온누리교회 목사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내용을 요약했습니다.

은퇴 이후 삶 준비하고 계신가요?

‘은빛날개 세미나’ 3월 13일 서빙고 홍보관



은빛날개 세미나 리더십들.

‘은빛날개 세미나’가 오는 13일(금)부터 4주 동안 진행된다. 지난해 두 번의 파일럿 프로그램(정식 발표 전 시험적으로 제작된)을 마치고 올해 정식으로 막 오르는 첫 번째 세미나다. 은빛날개 세미나는 은퇴 이후 인생을 준비하는 성도들을 위한 세미나다. 자신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돌아보고, 잠재되어 있던 은사와 열정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70대 노인도 이력서 써야하는 시대

“차세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르신 세대도 다

음 세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은 70대 노인도 이력서를 써야하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인생의 후반기를 미리 준비하고, 잠재되어 있는 은사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은빛날개 세미나를 담당하는 노치형 목사가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앞둔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전하는 메시지다. 노 목사는 은빛날개 세미나가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빛날개 세미나에서는 나의 미래, 현재의 외로움, 과거 돌아보기, 내 인생의 여정 기록하기, 일과

전문성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은퇴 후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가이드라인도 정해준다.

은퇴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은빛날개 세미나에서는 은퇴 후의 삶을 사역을 하는 시기로 정의한다. 은퇴한 성도들이 사회봉사 및 사회 선교 현장에서 자원봉사자 및 유급 사역자로 섬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다. 은퇴한 성도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은퇴를 경험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필요한 세미나가 틀림없다.

‘은빛날개’라는 명칭은 시니어 선교의 모델을

제시한 CGNTV 프로그램에서 따왔다. 세미나 내용은 20년 동안 ‘시니어 사역’을 비전으로 붙들고 준비해온 노치형 목사가 모은 국내외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다.

노인의, 노인에 의한, 노인을 위한

“사람은 늙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성숙해지는 존재입니다. 성경에도 노인은 지혜자, 교육자, 증거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지혜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관건입니다. 어린이는 싹을 틔우고, 어른은 꽃을 피우고, 노인은 씨앗을 남기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노치형 목사는 노인을 늙고, 힘없는 존재가 아니라 성숙한 존재로 바라보는 시각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은빛날개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은퇴 이후의 삶을 네 가지의 명제로 정의했다.

첫 번째 명제는 ‘늙음’이라는 단어를 버리고 ‘성숙’을 취하는 것이고, 두 번째 명제는 과거가 밑거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노 목사는 “과거가 미래의 밑거름이라는 것을 알면 굉장한 힘이 된다”면서 “요리 잘하는 사람들이 은사를 활용한다면 돈을 벌지 않더라도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 명제는 전문 네트워크를 만들어 노후를 후배들에게 전수하는 것이다. 젊은이들에게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그들의 사명으로 만드는 것이다. 네 번째 명제는 노년의 여유를 분노가 아닌 사랑으로 채우는 것이다. 노인의, 노인에 의한, 노인을 위한 시간으로 채우는 것이 바로 노년을 사랑으로 채우는 것이다.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참가자 간증



은빛날개를 달고, 믿음의 날개 짓을

/ 이희도 집사(일산공동체)

은누리신문에 은빛날개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마침 30여 년 직장생활을 마치고 수고한 대가로 쉼을 갖고, 그동안 헌신하지 못했던 교회사역에 시간의 십일조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던 참이었다. 부르심의 메시지를 보는 듯했다.

“그래! 바로 이거야. 드디어 교회에서도 은퇴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구나!”

나에게 닥친 일이라 그런지 은빛날개 세미나 같은 프로그램을 갈급하고 있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은퇴한다. 사람들은 은퇴를 당연하게 여기고, 별 관심조차 없지만 공허함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지는 않았다. 감사와 기대가 밀려왔다. 베이비붐 세대인 내가 감당해야 할 부담으로도 다가왔다. 순수했던 청소년 시절

과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 열정으로 달려왔던 지난날 몇 번의 변화를 겪어 보긴 했지만 지금의 모습과는 달랐다. 은퇴 이후의 삶은 지금까지와는 너무나 달랐다. 은퇴라는 현실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더불어 살아온 사랑하는 친구들, 후배들에게도 길이 있다면 알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이유로 은빛날개 세미나에 참가 신청을 했다. 은퇴자들의 알 수 없는 소외감과 외로움, 우울한 일상을 선배들은 어떻게 견뎌냈을까. 나는 다르다고 믿었던 막연했던 자신감도 답답한 현실 앞에서 작아졌다. 은퇴는 그만큼 큰 문제로 다가왔다.

은빛날개 세미나는 기대 이상이었다. 세미나는 노치형 목사님이 장기간 국내외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온 것을 기반으로 토론형식으로 진행

되었다. 처음에는 참여자들이 고령화 시대의 현실적인 해답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지혜와 꿈을 주셨다. 먼저는 늙어감(성숙)을 이해하기 위해 기억조차 기물거리는 어린 시절부터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매순간 개입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다. 빛바랜 사진첩을 뒤적이며 나만의 자서전을 써보고 싶은 소망도 갖게 되었다. 그 다음은 시대의 흐름을 명쾌하게 이해하는 시간이었다. 지식의 시대에서 경계가 없는 융합의 시대로, 무한경쟁 속에 단절된 오늘을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영감과 지혜임을 말씀해 주셨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시 111:10, 잠 9:10).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은퇴 이후 삶의 키워드를 과거 3R(Relax, Rest, Recreation)에서 이제는 3W(Walk, Work, Worship)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도 배웠다. 그 중에 Work에 대한 해석이 나를 흥분시켰다. 일상적인 Work가 아니라 살림(사람 살리는 일)을 하라는 것이었다. 또한 서로 사랑하라고 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가. 감동이 밀려왔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32)”는 말씀을 읽으면서도 삶으로 그것을 풀어내지 못하고 있었던 내가 참으로 부끄러웠다.

은퇴 이후의 삶을 네 가지 명제로 나눠 배웠다. 네 가지 명제는 늙음이라는 단어를 버리고 성숙으로 준비하고, 자신의 과거가 미래의 밑거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은사를 후배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노년의 여유를 분노가 아닌 사랑으로 채워나가는 것이다.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은빛날개 세미나에 꼭 참여하길 간절히 바란다. 3월 13일 금요일부터 분기별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하니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다. 날마다 채우고, 나누고, 비우는 하늘의 지혜를 달라고 말이다. 다시 한번 독수리 날개 처 올라가듯 은빛날개를 달고 믿음의 날개 짓을 꿈꿔본다.

■ 이 글은 지난해 10월 시범적으로 진행된 은빛날개 세미나 참가자의 간증이다.

청년들을 만나다

다시 한 번 부흥 꿈꾼다 'J4U공동체'

모두 하나 되어 섬기고, 나누고, 배우고, 가르치고



J4U공동체는 오직 예수, 오직 섬김으로 또 한번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J4U 공동체(담당 조준목 목사)는 2004년 3월 7일 창립했다. 올해 11주년이 되는 청년부다. 주일 오전 11시 30분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예배드리고 있다. 평균 예배인원은 460명이다.

J4U 공동체가 창립된 계기가 흥미롭다. 2004년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당시 대학, 청년부가 연합해 20~30대를 위한 맞춤형전도집회를 3일 동안 개최했다. 그 전도집회를 통해 약 70명의 초신자가 교회에 등록했는데 그들이 J4U 공동체의 주축이 되었다.

당시 전도집회에 참여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청년들의 열정은 매우 뜨거웠다. 그들과 함께 많은 목사들과 멘토들이 하나 되어 J4U 공동체를 빠르게 성장시켰다. 그렇게 새가족들을 위한 청년부가 탄생하게 되었다. 당시 집회 이름 그대로 공동체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J4U는 'Just for You'를 의미한다. 오직 예수님만을 기쁘게 하는 공동체라는 의미다. J4U 공동체는 공동체 양육뿐만 아니라 안산 M센터에 있는 캄보디아 지체들도 섬기고 있다. 또 탈북 청소년들을 1:1로 멘토링하는 '우리섬' 사역도 하고 있다. 강남 파고다 여학원 11층 카페에서 매일 새벽기도회도 열고 있다.

J4U 공동체는 다시 한 번 부흥을 꿈꾸고 있다. '생명이 이기다'는 표어를 내걸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삶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조준목 목사와 열두 명의 멘토, MC단, 그룹장, 사역팀장, 순원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 구슬땀 흘리고 있다. 큐티, 관계전도훈련, CDC를 통한 리더십 양육에 집중하고 있다.

새로운 기쁨과 활력소

안산 M센터 사역은 자신에게 선물이라고 말하는 J4U 공동체 백종환 형제를 만났다.

백 형제는 J4U 공동체 새신자반에 있을 때 설날 안산 M센터 사역에 대한 광고를 봤다고 한다. "그 때 아버지께서 병원에서 투병 중이셔서 연휴에 마땅히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산 M센터 사역에 지원을 했어요"

그는 M센터에서 받은 은혜가 정말 특별하다고 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체험이었다고 했다.

"명절에 봉사활동을 간다는 것도 처음 해 보는 일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어요. 여러 가지 일로 즐거울 게 없던 저에게 새로운 기쁨과 활력소를 찾아주었어요"

그 경험은 사역을 시작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는 그날 이후 한 달에 한번 안산 M센터를 방문해 캄보디아 형제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금도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면 안산 M센터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캄보디아 형제자매들과 교제하고 있다.

"처음에는 도움을 준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곳에서 섬기면서 오히려 제가 사랑을 받고 와요. 이 사역을 경험한 대부분의 청년들은 저와 같은 고백을 해요. 이 사역은 영혼을 살리고 새 힘을 얻는 의미 있는 사역이에요. 어떤 집사님이 살기위해서 M센터 사역을 한다고 고백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가족처럼 중보기도하는

J4U 공동체에서는 '우리섬'이라는 탈북청소년을 위한 학습멘토링도 섬기고 있다. 우리섬은 2013년 10월부터 탈북청소년들을 섬기고 싶어 지원한 10여명의 지체들이 시작했다.

장혜진 자매는 2013년 2월 초 한터공동체에서 탈북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미술치료사역을 해줄 것을 의뢰받았다. 2013년 9월부터는 하나공동체와 한터공동체의 탈북청소년 학습 멘토링도 함께 의뢰받았다. 그렇게 J4U 공동체 태안아웃리치 사역팀과 함께 학습멘토링을 섬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사역을 "지식을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체들이 겪었던 아픔과 상처를 알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하는 사역"이라고 소개했다. 이 사역을 섬기면서 무엇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친구가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고 했다. 또한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가족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가슴에 새겼다고 했다.

"앞으로 통일이 되면 하나님이 탈북청년들을 세우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섬이 귀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청년, 하나님을 만나다 구은영 자매

이제는 받은 사랑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나는 J4U 공동체에서 예배드리면서 크게 3가지 말씀이 가슴에 남는다. 2013년 1월 성경 후 업무 부담과 인간관계 갈등으로 절망 속에서 있었다. 결단 말정한 만신창이가 되어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게 되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요 15:16).

J4U 공동체에 처음 갔던 날은 공동체 9주년이었다. 공동체 모두가 9주년 축하하는데, 마치 나를 축하하는 것 같았다. 왜냐하면 그날이 내 생일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9년 만에 하나님 앞에 돌아온 날이기도 했다. 주님은 내가 돌아온 것을 그렇게 기뻐하셨고, 나를 태초부터 택하셔서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 7:7).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체험하고 싶었다. 그렇게 2달 동안 주어로 말씀을 읽었다. 그러면서 혼자 드리는 예배의 기쁨을 알게 되었다. 2013년 7월 그날부터 주님은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다. 음성으로 말씀으로 세상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 그리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부요한 임재를 느끼게 해주셨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 6:33).

값없이 받은 은혜에 내 시간, 마음, 생각,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

고 싶다고 서원했다. 그렇게 선교의 마음을 가진지 1년 만에 'FA 7기'로 북아프리카 T국으로 다녀오게 되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것은 원망하기만 했던 지난 세월이 잘대나 혼자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강하고 단단하고 사랑스럽게 키우고 계셨다. 나의 슬픔과 아픔을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선교를 다녀온 후 깨달은 것은 어떤 곳이든지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다.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고, 주 안에서 사랑이 흐르는 건강한 J4U 공동체 주심을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린다. 또한 이제는 내가 받은 그 사랑 흘려보내는 자로 설 것이다.

신앙의 선배를 만나다

죽기까지 대한민국을 사랑한 그녀

전라도 선교의 어머니 유화례 선교사

유화례 선교사
(1893-1995)

1893년 12월 21일 뉴욕 쿠퍼스타운에서 출생한 유화례(플로렌스 루트, Florence E. Root) 선교사는 죽기까지 대한민국을 사랑한 미국 사람이었

다. 그녀는 일제 강점기에 한국 땅을 밟았다. 식민지 시절, 고통당하던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했다. 한 줌의 빛을 준 선교사였다.

모두 떠났지만 그녀는 남았다

“네 평생 이와 같은 생활만 하고 싶으냐? 너는 남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말 너의 욕심 속에 빠지려느냐?”

대학 졸업 후 비서 일을 하고 있던 유화례 선교사는 스스로에게 던진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선교사의 길로 들어섰다.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가 떠올랐다. 그렇게 1928년 12월 18일 그녀는 부르심을 따라 미국 남장로회 파송으로 한국행 배에 올랐다. 그가 처음 도착한 곳은 전라남도 광주의 ‘수피아학교’였다. 그곳에서 그녀는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어로 설교를 하면서 조금씩 한국 생활에 적응해나갔다.

당시는 일제 강점기였다. 일제는 1931년 만주사건 이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에 심한 간섭을 했다. 가장 대표적인 만행이 신사참배 강요였다. 당시 수피아학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게 신사참배는 없다”며 거부해 폐교 위기에 처했다. 유화례 선교사도 학생들에게 신사참배를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다. 그렇게 학생들을 끝까지 지키려했지만 결국 폐교됐다.

1940년 미국영사관에서 갑자기 모든 선교사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 70-80명의 선교사들이 모두 고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지만 유화례 선교사는 남았다. 그녀는 도저히 한국을 떠날 수가 없었다. 그녀는 한국에 남아 각 지방을 돌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1941년에는 순천 애양원에 머물며 나병환자들을 돌보았다. 이후 그녀는 일제에 의해 스파이로 몰리기도 하고, 감방에 갇히기도 했다. 아쩔 수 없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한국인들에게 모두 퍼주는 삶

1945년 8월 15일, 라디오에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한다”는 일본 천황의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캐롤라이나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던 유화례 선교사도 그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 가서 나를 기다리는 농촌의 아낙들에게, 할머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겠다.”

1947년 10월 31일 전남 광주로 돌아온 유화례 선교사는 이듬해 제8대 수피아 교장으로 선임됐지만 1년 뒤 사표를 내고 농민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전주 선교사회 강당에 모인 선교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전쟁이 발발했다. 생각에 잠긴 유화례 선교사는 한국을 떠나지 않기로 결정하고 광주로 갔다. 그는 북한군을 피해 한국 사람들과 함께 산속에서 피난생활을 했다. 결박당하고, 두 달 동안 동굴생활도 했다. 하지만 한국인들을 위한 교육사업과 전도사역, 교도소사역, 고아원사역 등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했다. 그렇게 부산, 광주, 목포, 마산, 나주, 강진 등을 돌며 정년 70세가 될 때까지 성경을 가르쳤다. 한국인들에게 모두 퍼주는 삶을 몸소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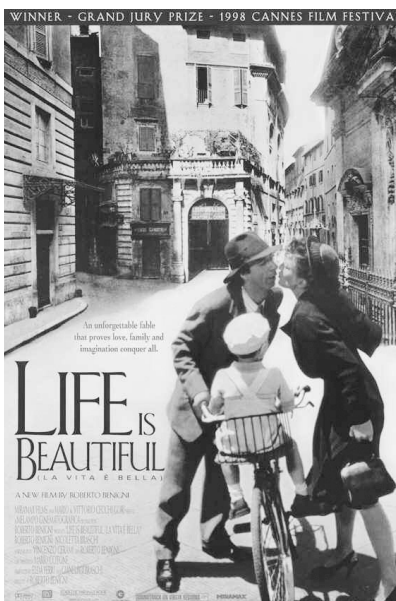
유화례 선교사는 광주 양림동의 조그만 양육소에서 노후를 보냈다고 한다. 그녀의 방에는 항상 태극기와 애국가가 붙어 있었고, 죽는 날까지 한국을 위해 기도하며 살았다.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영화를 말하다 채기석 목사(서빙고 차세대)

하나님의 사랑보다 값진 선물은 없다



인생은 아름다워

나에게는 수많은 자녀들이 있다. 집에 가면 토끼 같은 두 딸이 있고 교회에 오면 150여 명의 중학생 자녀들이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수많은 자녀들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고 고민하게 된다.

아버지의 마음이면 떠오르는 영화 한편이 있다. 중국 유학시절 DVD를 통해 보았던 로베르토 베니니의 ‘인생은 아름다워’다.

진지한 상황에서 웃음을 주기는 쉽지 않다. 많은 영화들이 그렇게 하려다 실패했다. 진지함과 웃음의 균형이 맞고 잘 배합되어야 어색하지 않다. 그런데 대부분의 영화들은 이 균형을 맞추지 못했다. 아쉽다. 하지만 ‘인생은 아름다워’는 다르다. 그 균형을 정말 잘 맞추고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유쾌한 기류가 흐른다. 그러면서 홀로 코스트의 참혹함과 아버지의 사랑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영화 줄거리는 이렇다. 부잣집 딸 ‘도라’를 사랑하게 된 ‘귀도’는 특유의 유쾌함으로 그녀에게 다가간다. 도라에게는 동화 같은 일들이 생기는데, 모두 귀도가 만들어내는 일화들이다. 항상 유쾌한 귀도와 도라 사이에 탱크장난감을 좋아하는 귀여운 아들 ‘조슈아’가 태어난다.

평화롭던 가족에게 불행이 닥친다. 독일의 유대인 말살정책에 따라 귀도와 조슈아가 강제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된 것이다. 도라는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가족을 따라나섰다. 귀도는 수용소에 도착한 순간부터 조슈아에게 자신들이 처한 현실이 신나는 놀이이자 게임이라고 속인다. 귀도는 자신들이 특별히 선발된 사람이라며 1000

점을 가장 먼저 따는 사람은 진짜 탱크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어릴 때부터 탱크장난감을 좋아했던 조슈아는 아버지 귀도의 이야기를 사실로 믿는다. 수용소의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귀도는 자신의 거짓말을 그대로 믿는 아들을 지키려고 눈물겨운 시투를 한다. 두 사람은 이슬이슬한 위기를 셀 수 없이 넘기며 끝까지 살아남는다. 마침내 독일이 패망하자 귀도는 조슈아를 숨겨두고 아내 도라를 구하려다 독일군에게 사살당한다. 조슈아는 날이 밝을 때까지 독일군에게 들리지 않으면 1000점을 채워 게임에서 이긴다는 귀도의 말을 믿고 나무 껍질에 숨어 있었다. 그리고 다음날, 누가 1등상을 받게 될지 궁금해하며 사방을 두리번거리는 조슈아 앞으로 연합군의 탱크가 다가오며 영화가 끝난다. 영화 마지막에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제 아버지가 희생당하신 이야기. 그날 아버지는 저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라는 말이 나온다. 그 ‘선물’이라는 표현이 내 가슴 깊은 곳에 묵직한 여운을 남겼다.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선물을 줄 수 있을까?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지 질문해본다.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 중 아버지의 사랑만큼 더

값진 선물은 없을 것이다. “아들아, 아무리 처한 현실이 어려해도 인생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란다.” 귀도의 대사가 깊은 울림으로 남아있다.

요즘 내가 섬기는 차세대 파워웨이브에서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비전을 마음에 품는 노헤미아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고 있다.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준비해 나가는 사람,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기를, 이런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아닐까.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이유는 나와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중학생 아이들의 학교 심방할 때 빼놓지 않고 하는 질문 두 가지가 있다. 구원에 대한 확신과 비전에 대한 부분이다. 대부분 많은 아이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야기하지 못한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다. 죄인을 살리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고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차세대들을 생각하며 기도한다. 아들이 좋아하는 것을 존중해 주었던 주인공처럼 나도 우리 아이들의 말과 생각을 존중하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자라게 하기를.

대한민국 기독교, 그 찬란한 역사를 만나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강화도 선교 120년, 인구 25%가 기독교인

강화도는 우리나라에서 다섯 번째로 큰 섬이었다. 또한 강화는 황해도, 경기도, 충청도, 멀리 서해까지 갈 수 있는 해상교통의 요충지였다. 고려 때는 몽고항쟁이 벌어졌고, 병인양요, 신미양요 등 외세의 침입에서 나라를 지킨 땅이다. 단군 신앙을 시작으로 불교, 유교 등 다양한 종교가 영향을 미쳤다.

복음의 문을 연 주인공 이승환

서울에서 개척선교에 성공해 자신감을 얻은 마감리회 선교부가 인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인천에서도 선교활동이 성공을 거두자 '독립계 석회'가 구성되었고 강화도까지 선교영역이 확장되었다.

내리교회 담임목사 존스 선교사는 인천뿐 아니라 강화에도 복음을 전하기 원했다. 그리하여 1892년 강화 갑곶나루를 통해 강화 읍성의 남문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런데 강화유수가 나와 "나는 당신네 서양 선교사들이 뭘 원하는지 잘 알고 있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당신들이 가져온 것을 원하지 않소"라며 입성을 거부했다. 이는 병인양요(1866)와 신미양요(1871)로 외국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던 강화도 사람들의 정서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존스 선교사는 어쩔 수 없이 제물로 돌아가게 됐다. 존스 선교사는 강화도에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했다. 인천 내리교회를 다니던 강화군 서서면 출신 이승환이 복음의 문을 여는 주인공이 된 것이다. 고향에 돌아온 이승환은 농사일을 하면서 노모를 모셨다. 이승환은 늙은 어머니가 죽기 전에 구원받기를 원했다. 그는 존스 선교사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기독교를 싫어하던 주민들의 반대가 거셌다. 마을 안에서 세례식을 한다면 그 집을 허물고 불태워 버리겠다고 협박했다. 그 날 밤 이승환은 노모를 업고 바다에 나갔다. 그리고 배에 올라 존스 선교사에게 '선상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이승환의 노모는 강화도에서 처음으로 세례를 받은 교인이 되었다.

이 일을 계기로 제물로 교인 이명숙이 강화당 전도사로 파송되었다. 1893년 이승환의 집에서 4-5명이 모여 예배를 드렸다. 강화 최초의 신앙공동체가 탄생한 것이다. 다음 해인 1894년에 김상임이 초가 열두칸의 예배당을 마련해 시루미 마을에서 교향으로 이전하였다. 이것이 강화교산교회의 시작이었다. 강화도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당시 양반이었던 김상임은 존스 선교사의 모습에 감명을 받아 세례를 받았다. 김상임의 가족도 모두 기독교인이 되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사회가 큰 충격을 받았다. 당시 사람들은 기독교를 천민이나 여자들이 믿는 종교로 여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반과 지식층들이 기독교인이 된 일을 계기로 교인수가 폭발적으로 증가되었다.

김상임은 교향교회 전도사의 직분을 받고 강

화구역을 맡아 시무했다. 그러던 중 1902년 봄, 마을에 열병이 돌았다. 김상임 전도사는 자신의 몸은 돌보지 않고 병자들을 간호했다. 그 일로 김상임 전도사는 열병에 걸려 2주 동안 심하게 앓다 죽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

강화 최초의 교회 교산교회를 통해 복음의 불길이 타올랐다. 1896년 학자 박능일과 그의 제자 20여명이 그의 자택에서 교회를 설립했다. 그것이 현재 '홍의교회'이다. 존스 선교사는 강화 본토 교인들의 전도활동에 감탄했다. 강화 교인들은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했다. 적극적으로 전도를 실천했다. 홍의교회 초기 지도자인 종순일과 주문교회 박두병, 박순병 형제 등은 자신들에게 빛을 진 사람들을 모아 빛 문서를 불태우고 빛을 탕감해 줬다.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옮긴 것이다.

강화에는 '돌림자 신앙'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교인들이 이름 끝에 '일(-)'자로 바꾼 것이다. 같은 돌림자를 쓰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시작이 홍의교회부터라고 한다. 박능일, 김경일, 김봉일, 권신일, 종순일, 정천일, 주광일 등 초대 일꾼 교인들이 모두 돌림자를 썼다. 강화기독교사에 길이 남을 사건이 일어났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전통적 상례를 뒤엎은 강화 최초의 기독교식 장례가 홍의교회 교인 '고씨 부인 장례식'을 통해 거행된 것이다. 상가에 슬피 우는 곡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찬송을 부르며 십자건을 쓰고, 산소에는 비석대신 십자패를 세웠다.

열매는 계속 맺혔다. 1900년 9월 1일, 홍의교회 교인이었던 박능일, 주선일, 하진일, 김봉일 등에 의해 잠두교회(현 강화중앙교회)가 설립됐다. 강화중앙교회는 설립 1년 만에 강화에서 가장 넓은 예배당이 되었다. 또한 강화선교의 중심이 읍성으로 옮겨졌다.

강화중앙교회에 다니는 김씨 부인이라는 여자는 팔십이 다되도록 자녀 없이 홀로 지냈다. 그녀의 곁에는 복섬이라는 여종만이 있었다. 김씨 부인은 복음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했다. 글을 알지 못해 성경을 보지 못하자 글을 배우기 시작했다. 성경을 읽고 종을 두는 것이 큰 죄라는 것을 알았다. 김씨 부인은 복섬을 불러 "우리는 다 한 형제라 내가 어찌 감히 주 하나님 앞에서 주인이 되는 죄를 범하겠느냐"며 종 문서를 불태웠다. 그리고 "금일부터는 너를 종으로 알지 않고 내 딸로 알겠다"고 말했다. 복섬은 김씨 부인을 친어머니처럼 섬겼다고 한다.

나라사랑도 으뜸

강화의 교인들은 항일운동에도 앞장섰다. 강화진위대장 이동휘 선생(상해임시정부 초대 국무총리)은 "기독교야말로 쓰러져가는 나라와 민족을 구할 수 있다"며 강화중앙교회 김우제 전도



강화중앙교회.



홍의교회.



교산교회.

사를 만나고 기독교로 개종했다. 이동휘 선생은 활발한 교육운동을 펼쳤다. 최초의 의무교육을 추진했으며, 교회 옆에 학교, 학교 옆에 교회를 세우고자 했다. 이동휘 선생은 강화에 72개, 전국에 170개 학교를 세웠다.

1907년 일제가 '정미7조약'을 체결하고 강화진위대를 강제 해산했다. 해산된 진위대병정과 기독교인, 주민들이 합세해 의병봉기를 했다. 일본군은 의병봉기에 참여했던 강화중앙교회 김동수 권사와 동생 영규, 사촌 김남수 권사를 주모자로 몰아 체포했다. 서울로 압송하던 도중 일본군은 즉결처형을 했다. 3형제가 순국했다.

강화중앙교회 청년들은 교회에서 비밀조직을 결성해 항일운동을 해나갔다. 강화의 기독교인들이 주도해 강화 31운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3월 18일 강화읍에서 장터 시위를 했다. 1만 4천명에서 2만 4천명이 참석했는데 이는 지방단위로 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였다고 한다.

강화 교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하는 과정에서 지주적이며 주체적으로 받아들였다. 강화에 복음이 씨앗이 떨어진지 120여년이 지났다. 그동안 풍성한 열매가 맺혔다. 현재 강화인구의 25%가 기독교인이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NGO 더멋진세상, 또 하나의 열매

세네갈 현지 초등학교 준공식 및 증축 공사 기공식



공사 전 갈대로 만든 학교.



공사 후 현대식 건물.

NGO 더멋진세상이 또 하나의 열매를 맺었다. 이번엔 아프리카 세네갈 본나라 마을에 케르발라 초등학교를 세웠다. 2층 증축공사도 앞두고 있다.

지난 3월 2일 아프리카 세네갈 본나라 마을에서 케르발라 초등학교 준공식 및 2층 증축 공사

기공식이 거행됐다. 행사에는 세네갈 고위공직자와 NGO 더멋진세상 리더십들을 비롯한 100여 명의 귀빈과 6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했다.

NGO 더멋진세상은 지난 2014년 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주)두산의 후원으로 세네갈 본나라 마을에 초등학교 건축사업을 시작했다.

자체 부족과 공사비 상승, 라마단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 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지만 극복했다. 케르발라 초등학교는 인근 지역의 부러움을 사는 명소가 되었다.

갈대를 엮어 만든 한 칸짜리 교실에서 세 학년이 함께 공부하던 허름한 학교가 이제는 콘

크리트 건물로 탈바꿈했다. 네 개의 교실과 태양광 전기 시설을 갖춘 현대식 건물로 거듭났다. 한명 뿐이던 교사도 세 명이 충원돼 네 명으로 늘었다. 그새 70명에 불과했던 학생도 250명으로 늘었다. 이제는 전기시설도 갖추고 있어 야간에도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주민들의 반응이 폭발적이다. 준공식에서 축사를 위해 NGO 더멋진세상 대표 김광동 장로가 연단에 서자 주민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어깨춤을 추면서 큰소리로 'Better World'를 연호했다.

축사에서 김광동 장로는 "이것이 끝이 아니다. 모자보건 사업과 농업개발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남은 사업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세네갈 본나라 마을은 NGO 더멋진세상이 3년째 '더멋진마을 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집중지역이다. KOICA 봉사단원을 보내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힘쓰고, 식수사업을 통해 주민들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고 있다.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파란단추, 올해 첫 장학금 전달

누리사랑부 자녀 2명에게 대학학자금 지원

파란단추(온누리 장학회)가 올해 첫 장학금을 전달했다.

지난 1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콘서트홀에서 누리사랑부 소속 성도 자녀 두 명에게 2015년도 1학기 장학금을 수여했다. 장학증서는 박종길 목사가 전달했다.

장학금 전달식에서 박종길 목사는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빛내는 귀한 인재들이 되기를 바란다"며 축복했다.

파란단추는 온누리 장학회의 새 이름이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꿈을 실현하는 첫 단추를 잘 채워 준다는 의미다.



장학증서 수여 모습.

파란단추는 온누리교회 소속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 정현주 기자

안산 M센터 신축기공예배

이주민, 다문화가정 사역 확장 및 예배공간 확보

안산M센터 신축기공예배를 3월 10일 오후 3시에 드린다. 예배에는 이재훈 목사를 비롯한 온누리교회 리더십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온누리M센터 신축부지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950-2번지다. 연면적 906평에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10월 완공 예정

이다.

1988년부터 이주민선교를 시작한 온누리M미션은 이주민지역과 다문화가정사역, 예배 공간 확보를 위해 새로운 M센터 건축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문의: 온누리M센터 031-491-9650

/ 정현주 기자

안산M센터, 특별한 세례식

TIM 신입선교사가 직접 전도한 4인

지난 삼일절, 안산M센터에서 특별한 세례식이 있었다.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들에게 세례를 줬다.

이번 세례식의 주인공이 두란노해외선교회(TIM) 신입 선교사들이 직접 전도한 국내 거주 외국인이라는 점이 특별했다. 외국인 노동자 키산(네팔), 중국 유학생 왕승(한족), 스리랑카인과

국제결혼한 노해영, 조선족 김창선이 세례를 받았다.

두란노해외선교회에서는 신입 선교사에게 TFO(Tim Field Operation) 선교현장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5기 TFO 훈련생들은 안산에서 두 달 동안 합숙하며 교회 개척 및 전도훈련을 받았다.

양재 만남의 잔치

날짜: 2015년 3월 15일 시간: 오후 3시 30분
만남의 잔치 장소: 드림홀 / 기간: 1월 1일~2월 28일까지 등록한 성도

강남A 강신옥 권순호 마규진 이재인 정미정 천정민 한은숙 홍지희 홍진숙	진현정 한석우 강남C 강주식 김도관 김미정 김민지 김인하 김정애 김진영 신영식 안종숙 여민진 오승열 유은경 정문선 하성희 황선영	강남D 김진형 노현성 윤성진 과천의왕 박민정 조화진 최진영 분당A 송정하 분당B 구명옥 김영지 김지수 민병훈 박재평	임정훈 전수희 차정호 신분안산 조광짜이 이병복 이영옥 서초A 박원숙 박희숙 심영수 서초B 양관석 이경훈 이영매 이입분	장복순 최인자 서초C 김현지 박경애 박재범 신동준 윤문자 윤문정 이주연 이화진 서초D 임선정 전문수 송파 권경은	김홍석 손지숙 신영선 이승애 장진경 정화숙 조성재 조용호 황소영 안양병촌 김은희 최계윤 양재 고민재 구해숙 김경미 김승철	민병권 박재우 박종예 박혜영 안권준 유인석 이귀자 이명자 이미경 장옥안 장지원 정혜순 조성한 최기선 최정심 황병덕
--	--	---	--	---	---	--

프리덤스쿨 3월 28일 개강

도곡교육관 기쁨홀 매주 토 17시

프리덤스쿨이 개강한다. 오는 28일 (토) 도곡교육관 기쁨홀에서 17시에 시작된다.

프리덤스쿨은 10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참된 자유를 누리도록 돕는 스쿨이다. 참가 신청은 아이스쿨(www.i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문의: 이병국 팀장 010-6275-8005



주간 기 · 도 · 제 · 목

- 3월 9일(월) 일본선교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집회가 되도록
- 3월 10일(화) 대규모 사찰, 최대 관광시즌으로 인한 영적혼란이 없도록
- 3월 11일(수) 냉랭한 한일 분위기가 집회에 방해를 주지 못하도록
- 3월 12일(목) 교토, 시가현, 오사카, 간사이에 100개 협력교회가 세워지도록
- 3월 13일(금) 하나님이 예비하신 1,800명의 전도대상자가 생기도록
- 3월 14일(토) 이재훈 목사님께 말씀과 성령의 권세가 더해지도록
- 3월 15일(일) 교회세미나를 통해 신실한 영적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제1039호 | 2015년 3월 8일(주일)

■ 온누리미션 규정수련회 후기

한국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해야 할 일

/ 양윤희 선교사(온누리미션 태국예배봉사자)

지난 규정 연휴 기간에 ‘예수 안의 진정한 자유’라는 주제로 캠프가 진행되었다. 김포의 한 수양원에 태국인 근로자들이 모였다. 이 캠프를 위해 태국 방콕 마하판교회에서 짜까판 담임목사님을 비롯해 9명의 준비위원들이 한국을 방문했다. 그들은 숙소가 좁고, 온수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어떠한 불평도 없이 한국에 있는 태국인들을 섬겼다. 뿐만 아니라 캠프에 참여한 지체들도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했다.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다.

캠프 첫날부터 마치는 날까지 사탄의 방해가 있었다. 하지만 캠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기에 태국인 참가자들 중에 그 누구도 실족한 사람이 없었다. 언어와 문화차이를 뛰어 넘어 한국 땅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태국 근로자들을 위한 이번 캠프는 그들의 갑급한 심령을 채워줬다. 태국인들도 진지하게 예배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주일날 한국어를 가르치던 유난히 눈망울이 초롱초롱하고 맑은 친구 ‘뱀’을 비롯한 두 명의 태국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수확도 있었다. 이번 캠프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내게도 정말 큰 기쁨이었다. 캠프에 참여한 태국인 근로

자들 중에는 사정상 부모형제를 고국에 두고 온 이들도 적지 않았다. 기도 받는 시간에는 설움이 북받쳤는지 통곡을 하는 참가자들이 많았다.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녹록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 또한 태국에 4년 정도 있었다. 당시 나그네로서의 외로움과 언어와 문화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많은 눈물을 흘렸던 시간들이 기억난다. 그들 또한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리라...

캠프에 대한 소감을 나누는 시간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캠프에 대한 감동과 하나님을 만난 기쁨을 이야기했다. 참가자들의 간증이 끊이지 않았다. 한국에서 태국인들을 양육하고 성장시켜 그들의 나라로 역파송 하는 것이야말로 현대선교의 중요한 패러다임 중 하나다. 선교는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지상명령이자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기도 하다. 선교지에 나가지 못한 크리스천을 위해 수많은 외국인들을 우리나라에 보내셨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가르치고, 섬기며, 역파송 하는 것이야말로 한국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더 많은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한국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섬겨주기를 소망한다.

■ 전도폭발훈련 개강



/ 백소영 성도

그래! 바로 전도다!

나는 창조주를 철저히 부정하고 살았다. 불신과 교만이 가득했다. 두 차례 유산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교회에 발을 내디딘 지도 어느덧 9년째다. 남편의 직장 때문에 북경에 가면서 온누리교회에 다니게 되었다. 큐티와 성경공부는 내게 생명이 되었다. 그 시간은 정체성 회복과 상처 치유를 경험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진리로 자유케 되는 삶을 조금씩 맛보면서도 삶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기쁨은 누리지 못했다. 그런 나에게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해준 것이 바로 전도다.

북경 온누리교회를 통해 어린이전도협회와 인연이 닿았다. 동네 아이들을 모집해 집에서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새소식반’을 시작하게 되었다. 사실 처음에는 ‘매주 집에서 목사님과 예배를 드리면 나의 두 아들에게 얼마나 좋을까’라는 이기적인 마음도 있었다.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른 채 열심히 간식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모았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을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야 깨달았다. 아이들의 친구가 집에 놀러 오면 예수님을 전하곤 했다. 그런데 학부형들과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막막했다. 그 방법을 잘 몰랐기 때문이다.

2012년 늦여름 주일예배에서 전도폭발훈련이 대열 팀장님께서 전도폭발훈련 간증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때 나는 ‘바로 저거다’라는 생각에 심장

이 뜨거워졌다. 바로 그 다음 주일에 등록하고 많은 기대와 기다림 끝에 전도훈련을 시작했다. 복음전문을 외워야 하는지도 모른 채 훈련을 시작한 나는 ‘복음전문만 외우면 전도 잘 할 수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외웠다. 시간이 날 때마다 외운 덕분인지 어느 순간부터는 입에서 복음전문이 술술 흘러 나왔다.

두 아이의 인생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에 세상적인 것으로 억누르지 않았다. 또한 전도하는 엄마는 삶과 신앙이 하나 되는 가장 최선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전도폭발훈련 기간이 2년이라는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2년여 동안 훈련자와 훈련생이 관계를 맺고, 전도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자아가 강하고, 완벽주의인 나는 그 고비를 넘길 때마다 제자들과 끝까지 함께 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다. 예수님은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게 하셨다. 나와 다름을 이해하면서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주셨다. 인내와 관계의 화평이 전도폭발 훈련을 통해 받은 귀한 선물이다.

**전도폭발 훈련은 전도의 생활화 및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무장시키는 훈련이다.
문의: 02-3215-3214

■ 프리덤스쿨 수료 간증



/ 강태욱 성도

그날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사업이 힘들어졌다. 급기야 지난 5월엔 수습할 수 없을 지경이 되었다. 피곤한 몸으로 퇴근한 나에게 위안이 되는 것은 술밖에 없었다. 일주일에 3-5번은 술을 마시고 잠을 청했다. 숙취로 힘들어하면 아내가 술을 못 마시게 할까봐,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데도 태연한 척했다. 그러면서 마음 한편이 무거웠다.

토요일에 술을 마시고, 주일예배를 드릴 때면 마음이 더 그랬다. 그러면서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또 고민했다. 술을 살까말까. 결국 ‘오늘만 사자’ 하고 술을 사들고 귀가했다.

5월 이후 사업체를 정리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에 이제는 대놓고 집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아내와의 다툼은 더 심해지고, 교회도 나가지 않게 되었다. 나의 상황을 공감해주지 않는 아내가 미웠다. 미운만큼 술을 더 마셨고 좌절했다. 보다 못한 아내는 나에게 프리덤스쿨에 참여해 볼 것을 제안했다. 나는 실패한 현재 상황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사업이 망한 것이 내 탓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치열하고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그런 제안을 하느냐고 거부했다.

2주차 과정 때였다. ‘거친 파도(세상)에서 능숙하게 파도 타는 서퍼의 모습’, ‘강하고 담대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를 상상하고 했다. 생각만으로도 기분 좋은 경험이었다. 지난날의 고민이 일시에 휘발되는 느낌이었다.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

을까’라는 탄식이 나왔다. 진정 내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일까, 마지막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정말 충실히 과정에 참여했다. 그러나 음주 습관은 여전했다. 과정 6주차 나눔 시간이었다. 나는 뭘지 모를 내면의 덩어리가 터져 나와 소리 내어 울었다. 어릴 때 말고는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다. 그러자 조원들이 내 등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었다.

“내 발목을 잡고 있는 사탄의 손목을 자르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맞선다.”

조원들과 내가 통성으로 기도했다. 내 등이 불에 덴 것처럼 뜨거웠고, 내 속으로 화끈한 무엇인가가 들어왔다.

그날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나는 그 날 이후 정말 신기하게도 술 생각이 나지 않았다. 사업실패에 대한 자책과 타인에 대한 원망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아내는 놀라면서도 걱정했다. 사람이 갑자기 바뀌었기 때문이다. 프리덤스쿨을 통해 묵상기도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큐티와 기도로 하루를 열고, 말씀을 생활화하게 되었다.

“나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예 33:3). 이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있다. 지금 내 일상은 이전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은혜로워졌다. 앞으로도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프리덤스쿨에서 배운 내용들을 적용하면서 삶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고경미 간사의(디자인실)
위클리 공감

우리는 다양 갈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 53:6

사순절 기간, 안락과 쾌락에 빠져 주님을 돌아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장로칼럼 김선래 장로(가정사역공동체)

행복한 가정운동 바람을 일으키자

요즘 ‘행복’이 사회 화두다. 그리고 떠오르는 것이 ‘저출산’ 문제다. 얼핏 보기에 무슨 관련이 있겠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둘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행복지수가 최하위다. 출산율은 세계 224개국 중에서 219위다. 경제적으로 잘 사는데 왜 이럴까?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생육하고 번성하라’에 역행하고 있다.

급기야 대통령까지 나서서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자고 했지만, 이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 지속적인 지원과 ‘영혼육’을 다스리는 양 날개가 있어야 한다. 지금은 한쪽 날개로만 나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행복지수는 꼴찌이고 자살율과 이혼율은 최상위다. 그렇다보니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미는데 자신이 없는 것 같다. 자녀교육을 잘 시킬 자신도 없는 것 같다. 가정이나 사회에서 행복한 삶을 별로 보지 못해 결혼을 미루기도 한다. 늦게 결혼해 지식 하나로 만족하는 형편이다. 15년 전 만해도 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책을 별로 세우지 않았다. 때문에 예산이 미미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다. 지난 9년간(2006년~2014년)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막으려고 66조원을 썼다. 그럼에도 출산율이 계속 내려가 작년에는 출산율이 1.19가 됐다. 옥스퍼드대학의 저명한 인류학자 David Coleman 교수는 2006년에 UN에서 발표하기를, 지금처럼 저출산 문제가 계속 이어지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되는 나라는 한국이라고 지적했다. 200년 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5만 명 남는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 이 문제를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경제정책과 영혼육에서 나오는 평강과 행복이 필요하다. 두 가지가 모두 있어야 가정과 사회의 행복지수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다. 이것 때문에 사탄이 우리나라의 교회와 가정을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가정사역자들과 기독교 지도자들이 운동을 벌였으나 한계에 부딪혔다. 이제는 때가 된 것 같다. 우리가 힘을 합쳐 먼저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 가정들이 교회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사회에 ‘행복한 가정운동’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행복지수를 올리고 저출산 문제를 막으려면 지속적인 정부의 재정지원과 ‘행복한 가정운동’이 사회에서 일어나야 한다. 예를 들어 5대개가 넘는 교회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아이를 낳으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차별화된 어린이 보육원을 만들고, 국비로 보모 수만 명씩 배출하는 방법이 있다. 한국의 교회들이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 교회는 부흥하고, 사회는 행복해지는데 큰 몫을 하지 않을까? 줄어들고 있는 기독교인을 늘리는 방안도 될 것이다. 행복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희망이 보이는 것 같다. 온누리교회에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가정사역공동체’가 있다. 가정사역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 가정사역공동체가 교회를 변화시키고, 교회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그들이 한국의 행복지수를 올리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 교회의 향후 30년 계획에도 커다란 획을 그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불가능은 없다.



권사칼럼 이성미 권사

전도, 배워야 하고, 훈련도 받아야 한다

나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정말로 감사하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전했다. 삶의 현장에서 가족과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는 기쁨이요, 행복이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내가 아는 만큼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정식으로 전도훈련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나는 ‘온누리전도학교’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

5분 전도 훈련을 받고 난 뒤 나에게 큰 변화가 생겼다. 전도할 때 복음을 체계적으로 전하게 되었다. 또한 대상자들이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 왜 고난을 주시냐”는 등 대답하기 어려웠던 질문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게 되었다. 사실 대답을 못해 난감할 때가 많았다. 그런 일들이 쌓이다 보니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이제는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다 보니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게 되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었다.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할 복음을 요약하고 준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증인의 삶은 대중 아는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정확하고 확실해야 한다.

어느 날은 한 번도 교회를 다닌 적이 없는 부부를 전도하게 되었다. 처음에 그 부부는 나에게 싸늘하고 민망할 만큼 거리를 두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상대방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최선을 다해 사랑과 복음을 전하였다. 그러던 차에 40일 새벽기도회가

시작되었다. 나는 그 부부에게 온누리교회를 소개하며 새벽기도회에 함께 참석할 것을 권유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생겼다. 교회의 문턱조차 밟지 않던 그 부부가 새벽기도회에 흔쾌히 나와 준 것이다. 교회에 한 번도 다닌 적이 없다는 말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그 부부는 40일 내내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 첫날 앉았던 그 자리에 앉기 위해 1시간 전에 나와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일까?

하루는 그 부부가 왜 이렇게 몸이 뜨겁냐면서 겹옷을 벗기 시작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당황해 했다. 예배가 끝난 뒤 그 당황스러웠던 부분에 대해 말씀과 기도로 풀어주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감동하며 40일 내내 예배드리고 교제를 나눴다. 그 부부는 지금 새신자 4주차 교육 과정을 마치고 일대일 양육을 시작하려고 한다.

이 세상은 지금 복음을 전하기 힘들고 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는 지를 주위를 살펴야 한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꼭 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사명이다. 전도는 배워야 하고, 전도훈련도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식의 홍수 속에서 전도자는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 이 세상 지식을 능가할 만큼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김소리 목사(평택 온누리교회)의 신앙에세이

크리스천과 갈등

갈등(葛藤 갈뚝나무 등)은 험년궤과 등나무궤를 말한다. 이 둘이 얹히면 풀기 어렵다. 풀기 어려운 상황과 대립이 연계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갈등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갈등이라는 말 안에는 대립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성경에는 많은 갈등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에서와 야곱이다. 리브가가 두 아들을 임신했을 때부터 두 형제는 엄마의 뱃속에서 서로 싸웠다. “먼저 나온 아들은 빨강고 온몸이 털옷과 같아서 그 이름을 에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동생이 나왔는데 손으로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있었습니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습니다”(창세기 25:25-26)

에서와 야곱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갈등했다. 한 아기는 발뒤꿈치를 잡히는 인생으로, 한 아기는 발뒤꿈치를 잡는 인생으로 시작했다. 가만히 보면 갈등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정말 가까운 관계에서 빈번하게 일어난다.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형제자매 사이, 친구나 동료, 교회 성도 간에 갈등이 생긴다.

왜 갈등이 시작되는가? 상대방에게 나와 다른 점이 상대방에게 있고, 그 다른 점이 내게는 틀린 것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사람은 서로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 오토바이 소리를 듣고,

스님은 ‘부다! 부다!’, 목사님은 ‘부흥! 부흥!’으로 들린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한 고대 철학자는 “서로 다른 것들이 모여 아름다움을 만든다. 한 가지 소리는 아름다운 음악이 되지 못하고, 한 가지 색은 찬란한 빛을 이루지 못하며, 한 가지 맛은 진미(珍味)를 내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갈등은 어떤 면에서 기회가 된다. 나와 다른 점이 만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갈등을 피하고 싶다. 크리스천은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나는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자기 죄를 감추는 사람은 잘되지 못하지만 누구든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잠언 28:13). 갈등의 해결은 갈등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다. 갈등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은 문제가 없다. 어쩌면 이 분야에 있어서 우리는 뛰어난 것을 넘어 탁월하다. 진짜 문제는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갈등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내가 먼저 상대방의 손을 잡기를 원하신다. 내가 먼저 사랑과 용서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이 요청에 순종하는 것이 ‘나는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다’는 고백이다. 진짜 믿음의 행동이다.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알 속의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오기 위해 안에서 깨는 것을 ‘줄’이라 하고, 머리 닭이 새끼 나오는 것을 돕기 위해 바깥에서 쪼는 것을 ‘탁’이라 한다.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자신도 노력하지만 돕는 손길이 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갈등의 껍질을 깨는 경험을 하게 된다. 나 혼자 그 껍질을 깨는 것이 아니다. 내가 먼저 손잡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순종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다.

인생에서 뜻하지 않는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우리는 결정해야 한다. 후회하며 낙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그것을 가져갈 것인지. 내 아버지께서는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우리는 가망 없고 희망 없는 인생이 되었다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산산조각 난 삶의 파편들을 사용해서 놀랍도록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시는 분이다. 기도할 때, 순종할 때, 갈등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적인 에너지가 될 수 있다. 기도하며 순종함으로 갈등의 파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바란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기도의 손을 들라

여러분, 언제 아말렉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까. 언제 육신과의 싸움이 시작이 됩니까. 출애굽 전에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싸움을 걸 어오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출애굽 한 이후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아말렉이 공격을 시작합니다.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난 시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할 즈음입니다. 성령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막 체험하기 시작할 무렵 영적전쟁이 시작됩니다.

아말렉의 공격, 전형적인 사탄의 방법

둘째,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방법입니다. “네가 이집트를 나올 때 아말렉 사람들이 네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 보아라. 네가 지쳐 피곤했을 때 그들이 길가다가 너 회를 만나서 뒤쳐져 있는 자들을 치지 않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신 25:17~18).

아말렉 족속은 지치고 피곤해서 뒤쳐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습니다. 그들은 비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말렉이란 이름은 ‘전쟁을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서는 팔죽 한 그릇에 장자의 고귀한 축복을 팔아넘긴 아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조상이 그렇다고 해서 후손이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에서의 명령된 모습을 그대로 이어받아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영혼의 소중함을 팔아넘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공격방법은 전형적인 사탄의 방법이었습니다. 지쳐서 뒤쳐져 있는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탄에게 속한 공격방법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강한 것 같지만 약자입니다. 전능하지 않습니다. 세계를 돌아다니지만 무소부하지 않습니다. 영리하지만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을 무너뜨리지만 하나님은 결코 상대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약자입니다. 약자가 강자를 상대할 때는 정면대결을 피합니다. 강자를 공격하기 위해서 비겁한 방법을 씁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 공격은 상식적이고, 정당하고, 이해할 수 있는 논리적이 아닙니다. 매우 은밀하고, 비합리적이고, 비대칭적이고, 예기치 않은 상황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 무너뜨립니다. 아말렉 같은 방법으로 공격을 합니다.

여호와 닮게! 승리의 깃발!

셋째, 하나님이 아말렉을 어떻게 평가하셨는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책에 써서 기념이 되게 하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듣게 하여라.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모조리 없애 버릴 것이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닮이라고 부르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을 대적해 싸우시겠다고 맹세하셨다(14~16절).

왜 하나님이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모조리 없애 버리고 대대로 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말렉이 모든 성도들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죄와 육신의 소욕을 상징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되 모조리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잔인하신 분이시고 아말렉만 미워해서 내린 명령이 아닙니다. 아말렉이 상징하는 상징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대답만 했지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살진 송아지, 살진 육축들, 좋은 것들을 전리품으로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대대로 아말렉을 제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들을 완전히 제거할 때까지 싸워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까요. 아말렉을 이긴 모세의 비결을 따라 우리도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손을 드는 것은 항복의 표현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은 내 힘과 능력으로는 싸울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이 일어날 때, 죄가 나를 유혹할 때, 나를 넘어뜨리는 광야의 시험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손을 드십시오. 그것은 사탄에게 항복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항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것입니다. 또한 손을 높이 드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님은 모든 일의 승리자이시며, 주권자이시며, 전능자이시며, 나를 구원하신분입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을 때 모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닮게!’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손을 들 때 하나님은 우리 손을 깃발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손을 높이 들 때 그 기도의 손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승리의 깃발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도의 손을 들라는 여러 명령들이 나옵니다. 세 구절만 보겠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살펴보고 점검하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마음과 손을 들어 올리자”(에 3:40~41).

“주의 지성소를 향해 손을 들어 주께 부르짖을 때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시 28:2).

“그러므로 나는 각 곳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바란다”(딤후 2:8).

우리의 손을 들 때 마음이 들리고, 믿음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적전쟁의 승리가 주어질 것입니다. 기도의 손은 하나님의 보좌에 까지 도달합니다. 그 보좌를 붙잡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할 것입니다. 기도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할 것이고, 보이는 세상의 모든 문제와 전쟁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로 가지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 때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한 모세가 손을 높이 들었을 때 산 밑에서 전쟁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어깨까지 그 기도의 손이 닿았습니다. 기도의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어느 곳든지 기도가 필요한 곳까지 닿을 것입니다. 우리는 직접 갈 수는 없지만 기도는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손이 그들의 어깨를 붙잡아 주었고, 연약한 무릎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체험을 많이 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연락을 종종 받는데 그 때는 제가 힘들 때입니다. 어제 밤에 꿈을 꾸었는데 제가 시달리고 있는 꿈을 꾸어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놀랍게도 그 꿈에 저의 상태가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중보기도하면 기도의 손이 길어집니다. 기도의 손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승리의 깃발이 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전쟁이든, 이 세상에 있는 죄의 전쟁이든 무조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의 손을 보시고, 그 백성들이 이기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두란노 신간

그리하면 반드시 만나 주실 것이다

〈울고 싶은 날의 은혜〉
켄 가이어 저 | 두란노 | 11,000원

“겨울은 기다림의 시간이고,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다. 겨울이 되면 하나님의 침묵이 눈으로 뒤덮인 외로운 평지를 가로질러 울려 퍼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기다림의 시간이고, 성찰의 시간이며 소망의 시간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영혼의 겨울’에 대해 집중적으로 묵상했다. 누구나 경험하는 위기, 아픔, 시련, 고통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썼다. 저자가 적는 따뜻한 문장들이 다친 마음을 위로한다. 마음이 불안하거나 절망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라고 권면하는 명확한 이유가 밝혀져 있다.

위로와 사랑의 메시지를 곱씹다보면 어느새 아픔과 시련은 사라지고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다.



328쪽

소망하고, 꿈꾸고, 알아가는, 보물찾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몰랐다〉
박원호 저 | 두란노 | 10,000원

삶이 공허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소망이 없는 것은 이미 이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교회의 근본이며, 믿음의 중심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한다.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돕는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서 출발한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당신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땅의 나라를 향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이 책을 읽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꿈꾸고, 알아가는 보물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